

기 념 사

(제139주기 창의사 재미의거 기념 추모제)

2023. 5. 9.(화) 10:30 / 군외면 당인리 창의사

여러분! 반갑습니다.

완도군의회 **허중희** 의장입니다

저는 먼저 139년 전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

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바치신

허사점 선생을 비롯한 8분의 열사들께

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

슬픔을 안고 긴 고통의 세월을 보내신

후손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.

그리고 오늘 뜻 깊은

제139주년 창의사 재미의거 추모행사를 마련해주신

허사점의사기념사업회 **김풍호** 회장님을 비롯한

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께
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

박병수 의원님, **서길수** 문화예술과장님,

전호용 군외면장님을

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존경하는 허사점의사기념사업회 회원여러분!

그리고 내외귀빈여러분!

1883년 제미년 당시, 이곳 근외면 당인리 주민들은
고을 수령과 하급 벼슬아치들의 무도한 권력에
말도 표현할 수 없는 크나큰 고초를 겪었습니다.

이에 허사점 선생을 비롯한 8분의 의인들께서는,
이들의 학정과 수탈에 맞서 백성들을 위해 의연히 싸우셨고,
가혹한 고초를 겪으시다 의로운 삶을 마감하셨습니다.

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,

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
불의에 항거하신 이분들 덕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.

이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의로움 또한,

우리 지역사회를 일군 초석이 되었고,

더 나아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였습니다.

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이분들의 뜻을 잊지 않고

모두가 평등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

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.

다시 한 번 창의사 허사점 선생의 추모제 뜻깊게 생각하며
허사점의사기념사업회의 무궁한 발전과

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

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
감사합니다.